

신라 왕경숲 조성에 있어서 주요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김윤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How to Choose the Species of Trees on the Afforestation Project of Shilla Dynasty's Capital Forest

Kim, Yoon-Ha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is research is basic research about 「the afforestation project of the Shilla Dynasty's capital forest」 which is controll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forest and environment of Kyung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bout target places and selection of major species of trees is as follows.

1. In the Shilla Dynasty's times, the peach tree was the indicator of unusual changes in weather, and was also the symbol of unsurpassed beauty. Peach trees were so prevalent that people called the forest peach-hill or peach-forest. Therefore, the main tree of Shilla Dynasty's capital forest would have to be a peach tree.

2. From several records, pine and bamboo were planted or grown together. The pattern of planting trees like this case is also historic, so should be utilized positively.

3. In order to afforest the capital forest, the bamboos have to be planted on Nam-mountain in Kyungju, and maple trees have to be planted on Kungang mountain.

4. There were many big trees during the Shilla Dynasty, and the name of one of the Six Main Villages was "Big Tree Village". Therefore, big and long-lived trees have to be planted also.

5. The willow tree has to be considered for afforesting the capital forest even though the willow trees are misunderstood to cause allergies. They are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trees. In the traditional literature, the willow tree stands for good news.

6. Japanese cornelian cherry(*Cornus officinalis*), which is related with old narrative literature in the era of King Kyungmun, has to be planted for the forest, and has to be considered to be an educational tree.

7. Korean Rhododendron, which is related with Madam Suro's story, has to be planted in stone gardens.

8. Lotus, Korean pulsatilla, Boxwood, Bombycis Mulberry, and Japanese Apricot have been recorded just one time, but these are also important plants which have to be reflected on afforestation of capital forest project.

9. The forests of Shilla on the old records exist in 17 places. The afforestation project has to be undertaken at these places.

10. The people of Shilla deified the forest and trees, which were the places where ancestral rites had been performed. For example, Gyerim, Sinyurim, and Wanggasu were the sacred forests of the capital forest.

Key Words : Capital Forest, Peach, Pine, Bamboo, Shilla, Willow, Cherry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단개발 위주의 정책은 한계성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문화를 자원화시키고 산업화 시키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의 핵심 키워드로서 역사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문화관 지역 이미지를 특성화시키고 고급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좋은 자원이다.

특히 영남지방은 “천년수도 신라”라는 엄청난 역사 자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에 강하게 남아 있는 유교문화권과 고령 김해를 중심으로한 가야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하나의 탐방로로 엮어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생태숲, 마을숲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최근 청계천 복원공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을 때, 사전 연구나 학회 차원의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라 왕경숲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도 학술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항상 예산 확보가 우선적인 문제고, 계획 진행은 차후 문제로 진행되다 보니 계획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사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학회 내에서 좀 더 빠른 연구가 진행되는 풍토가 조

성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 천년의 경주역사문화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경주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가꾸기 위한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은 시기적절한 주제며,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로 판단된다(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2004, 자문위원회 자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왕경숲을 구성할 수종선정에 관한 문제와 사업대상지를 재검토하여 올바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왕경숲이라는 주제가 역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사실 규명을 밑바탕으로 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신라 왕경숲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경숲의 역사성만을 연구한 것은 없었지만 관련 논문은 여러 편이 있어 부분적인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장동수 등(1993)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지리지를 폭넓게 분석하여 경상도 지방에 분포한 임수의 분포적 특징, 조성배경, 기능적 특징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 특히 경주와 안동에 많은 임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김학범과 장동수(1993)의 연구에서는 한국 마을숲의 근원적 배경은 종교적 차원, 풍수·유교적 차원, 그리고 국가경영적 차원임을 밝힌 바 있다. 김학범과 김정태(1995)의 연구에서는 읍수(邑叢)를 연구하기 위해 경주, 개성, 한양,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읍수(邑叢)가 장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주요 수단인 도시경관시설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장동수와 이규목(1997)은 경주와 포항의 임수의 보존과 그리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바가 있다. 가장

밀접한 연구 결과는 장동수 등(1996)의 경주 읍수의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

II. 연구방법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느 대상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관련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 주요 수종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두 번째 대상지와 관련된 문제는 앞선 선행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연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활용하되 선행연구에서 미진한 부분과 새로이 발굴된 사료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삼국사기(1145년), 삼국유사(1281~1283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경잡기(1669년), 경주부읍지(1789년), 읍지(1832년경), 경주읍지(1933년), 금오승람(1936)년, 경주군사(慶州郡史) 등의 역사서와 지리지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실체를 밝히는 문헌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고지도는 마을 숲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읍지도(1832년경)와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1/10,000, 1/25,000 지형도를 참조하여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왕경숲의 수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주의 생태적인 측면이라든지 현재 자생수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수종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현재의 자생수종, 향토수종을 밑바탕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유관기관의 추진 방법이다. 따라서 이 추진사업에 역사성이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수종을 선정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신라 천년의 흔적을 간직

한 경주역사문화유적지에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왕경숲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라왕경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의 위치는 경주시 천군동 130번지 일원 및 동천동 시설녹지로 부지 면적은 약 32ha 정도이다. 사업추진의 방향은 ① 신라문화의 상징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도시민에게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숲 조성, ② 시설계획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하나의 숲이 되고 숲 자체가 주제가 되는 숲공원으로 조성, ③ 숲의 문화성, 숲의 역사성, 숲의 예술성, 숲의 환경성, 숲의 생활성, 숲의 과학성이 부각되는 주제 공원으로 조성한다. 추정사업비는 설계·공사비 등 제 비용 포함하여 100억원이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면 2004년 3월 22일 추진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산림환경연구소내 조정사업과를 만들었으며, 동년 8월 23일 관련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10월 5일에 현상공모하고 11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2005년 5월에 설계가 끝나고 입찰, 계약, 시공에 들어가서 2006년 6월에 완공 예정이다(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 공고 제2004 - 1호).

2. 주요 수종의 선정

그 동안 신라 왕경숲에 대한 정부의 보도자료¹⁾와 신문에 보도된 내용²⁾을 요약해 보면 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모감주, 소나무 등의 향토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향토 수종이기 때문에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왕경숲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징숲을 만드는 것에는 그만한 역사적 당위성을 갖는 수종을 선택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통조경에서 그 시대의 중요한 수목은 문헌을 통해 고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신라 왕경숲의 주요 수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조사해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1)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桃李)

삼국사기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나무가 도이(桃李)로 10회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신라 6회, 고려 3회, 백제 1회로 나타나³⁾ 신라에 특히 많이 기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기록들이 음력 10월에 꽃이 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된 시기를 보면 기원전 16년부터 863년까지 폭넓게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백제 온조왕 3년(BC 16년)의 「뇌도이화(雷桃李華)」라는 기록은 음력 10월의 기록인데, 천둥 우뢰가 치고 복숭아꽃, 살구꽃이 피어 기상이변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듬해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기상이변은 그 다음해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상의 지표 역할로서 「桃李」가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중요한 수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많은 수목도감(김태욱, 2002: 318) 및 수목관련 서적에서 복숭아나무는 중국 원산인데 기원전 2000년경 한국에 도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기록은 오히려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미 자생적으로 많이 있었던 나무를 증명하는 좋은 사료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고구려는 「桃李」에 관한 기록이 3회 있지만 오히려 배나무(梨)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양원왕 2년(532)의 기록¹⁾에 의하면 王都(초기 평양 안학궁)에 배나무가 길에 연이어 심겨져 가로수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복숭아나무와 연관성이 있었음은 「桃李」이외의 기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39권 志8에 직관(職官)을 보면 신라시대 남도원궁(南桃園宮)이 있고 여기어 옹(翁) 1명을 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도원궁'이란 월성 남쪽 궁궐에 복숭아밭(桃園)이 있는 궁궐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자료로 보인다. 신라 시대에 복숭아밭이 귀하게 여겨졌음을 나타내 주는 자료다.

물론 '남도원궁'이라는 궁궐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도림(桃園)이라고 하면 흔히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도림(桃園)이 중국의 무릉도원을 본받아서 조성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²⁾가 기록된 시기로 보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桃園과 桃源은 다르다. 桃園은 복숭아나무가 군

식되어 있는 동산(園)이고, 桃源은 복숭아 근원지(源)인 계곡이므로 다르다. 다르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신라시대 「桃李」에 관한 기록이 102년에 시작하고 있으며, 백제시대에는 기원전 16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桃園이 무릉도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밖에도 신라시대 복숭아(桃)에 관한 기록은 더 있다. 삼국사기 지리4에 이름만 있고 위치를 모르는 곳 가운데 도림(桃林)이라는 곳이 있다. 복숭아나무가 집단적으로 군식되어 있어서 숲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경주 서쪽에 있는 높이 380m의 산이름이 선도산(仙桃山)⁶⁾이다. 삼국유사에 도화녀(桃花女)와 비형랑(鼻荊郎)조를 보면 얼굴이 하도 고우므로 「도화녀」라고 불렀다는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 당시 복숭아꽃의 상징적 의미를 알 수 있다. 또한 분황사 원지를 발굴할 때 복숭아씨가 발굴(그림 1 사진출처 http://www.ahnghb.com/k_index.html) 되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신라시대에 복숭아나무는 기상이변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 나무이며, 도원(桃園), 도림(桃林)이라고 할 만큼 군식으로 아주 많이 심겨져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도화녀(桃花女)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아름답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 왕경숲을 복원함에 있어서 주 수종(樹種)은 복숭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재기법은 군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설계형태는 「복숭아 동



그림 1. 분황사지 복숭아씨

산)이나 「복숭아 숲」의 형태로 설계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경주에는 보문단지에 벚꽃 길을 조성해 벚꽃이 필 무렵에는 전국에서 방문객이 찾아오지만 벚꽃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벚꽃이 일본의 국화(國花)라고 해서 전국 각처에 심겨진 벚꽃을 모두 뽑아낸 시절이 있었고, 다시 제주도에 자생지가 발견되어 벚꽃을 심어도 괜찮다는 논리적 근거가 생겨 다시 한국의 여러 곳에 벚꽃을 다시 심게 되었지만, 신라 왕경에 있어서 벚나무는 역사성을 갖지 못하는 나무다. 따라서 신라왕경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벚나무를 갱신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나무와 대나무(松竹)

삼국사기에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함께 「桃李」로 기록되듯이, 소나무와 대나무도 함께 「松竹」으로 기록된 것이 2회다. 애장왕 2년(801)에 큰 추위가 있어 송죽이 모두 죽었다는 기록⁷⁾이 있다. 또 최치원은 난세를 만나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 대사(臺榭)를 짓고 송죽을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별서를 조영하면서 송죽을 심었다는 내용이다. 삼국유사 달달박박(惻惻朴朴)조에도 송죽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소나무와 대나무는 함께 식재되거나 자라던 수종이다. 이러한 식재 패턴은 한국의 자연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두 나무는 모두 상징적 의미도 비슷하지만 생태적으로도 소나무 아래에 잘 자라는 나무가 조릿대라서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좋은 조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식재패턴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신라 왕경숲 복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8년(234)에는 차폐용으로 왕능 앞에 7겹으로 소나무를 심은 것⁸⁾으로 보아서 소나무를 매우 독특하게 열식했음을 알 수 있다. 소나무는 가지가 조밀하지 않고 맹아력이 약해 보통 차폐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릉에 소나무를 차폐용으로 심은 것은 왕릉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오랜 관습에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유사 김유신조에는 송화(松花)가 동부림

(洞府林)에 만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⁹⁾. 동부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결과인 장동수 등(1996), 장동수와 이규목(1997), 김학범과 김정태(1995), 김재식과 김기문 편저(1991) 등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위치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동부림에 송화가 만개하였다는 것은 송림을 이루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12년(672) 9월에는 “남산에 있는 대나무에 죄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많다”는 기록¹⁰⁾이 있다. 나당대전과 관련 있는 부분의 기록인데 자신의 죄가 많음을 남산에 있는 대나무에 빗대어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경주 남산에 많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경주 남산에는 일부 지역에만 대나무가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남산에 대나무가 많다는 것을 느끼기 힘들다. 따라서 왕경숲이 되기 위해서는 남산에 대나무를 보식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포산이성(包山二聖)조와 용천사해성가(融天師誓星歌)조에는 풍악(楓岳)이 금강산이라 하여 경주 동북쪽 산에 단풍나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에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절경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도 왕경숲을 복원하는 일이다.

삼국유사 경문왕(861~875)조에는 도림사(道林寺) 죽림(竹林)이 등장한다. 경문왕의 귀가 긴 것을 비밀로 하다가 죽을 때에 도림사 죽림에 들어가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고 소리친 바로 그 내용이다.

그밖에 잣나무 혹은 측백나무(栢)는 삼국사기에 소나무와 함께 송백(松栢)으로 2회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대나무와 함께 죽백(竹栢)으로 1회 기록되어 있다.

3) 큰나무(大樹)

삼국사기 수목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大樹」란 기록이다. 총 7회 기록 가운데 신라의 기록만 5번이고 나머지 두 번은 백제 다루왕 때 기록¹¹⁾이다. 기록이 나타난 시기를 보면 기원전 57년부터 839년까지이다. 중간에 기록이 없는 듯 보이지만 「樹」만 기록된 것¹²⁾도 있기 때문에 기록이 계속 있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록된 내용은 대풍(大風), 폭풍에 대수(大樹)가 뽑혔다는 내용인데 이는 왕이나 중요한 사람

의 죽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휴왕(196년), 민에왕(閔哀王 839년), 근구수왕(近仇首王 384년) 때 기록을 보면 대수가 뽑히고 난 다음해 왕이 돌아가신 사실이 적혀 있다.

박혁거세 때 기록은 6부촌 가운데 네 번째 마을 이름이 대수촌(大樹村)이라고 한 내용이다. 대수촌의 위치는 김재식과 김기문 편저(1991: 335, 954)에 의하면 건천읍 건천리 일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건천리에 “술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것이 대수촌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큰 나무가 많이 있었던 마을이라서 대수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수는 크고 오래 사는 나무 즉 장수목일 것이다. 대수(大樹)의 수종은 다루왕 때 기록인 「大槐樹」처럼 느티나무나 회화나무일 것이다. 이러한 특징도 왕경숲을 복원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4) 버드나무(柳)

버드나무는 봄철에 솜털처럼 훑날리는 씨앗이 알레르기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인¹³⁾되어 전통조경수목임에도 불구하고 훗대를 받아왔다.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현상은 그 당시 「봄철 꽃가루 = 버드나무」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버드나무가 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엄연히 궁남지에 楊柳(수양버드)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드나무 가로수를 베어내는 일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버드나무는 전통조경수목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나무이며, 또한 향토 수종으로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수목이다.

버드나무를 桃李, 松竹, 大樹에 이어 네 번째 항목으로 별도로 기술하는 이유는 삼국사기에 3회 기록¹⁴⁾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해왕 3년(198년)에는 시조묘 앞에 엮드려 있던 버드나무 와류(臥柳)가 스스로 일어났고, 첨해왕 7년(252년)에는 금성 남쪽에 있던 와유(臥柳)가 스스로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모두 좋은 일을 상징하는 뜻으로 적혀 있다. 신라 왕경숲을 복원하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수종이다.

5) 기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1~2회 기록된 나무들도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에 고려해 볼만하다.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도 적절히 내려 유용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① 산수유(山茱萸) : 이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한 고사(古事)인 삼국유사 경문왕(861~875년)때의 죽림을 거론하면서 같이 거론되어야 하지만 단어의 출현회수에 의해 누락되었던 부분이다. 산수유는 단 1회 기록된 나무이지만 얽힌 고사가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임금님의 귀는 나귀 귀와 같다하여 죽림을 베고 심은 나무가 산수유다. 하필이면 산수유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산수유가 사람의 몸에 좋은 정력강장제, 보양제의 약효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을 것이란 추측밖에 할 수 없다. 결국 경문왕은 죽림을 베어내고 지리산 산수유 마을처럼 산수유나무를 군식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왕경숲 조성 계획에서도 산수유를 군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고사(古事)를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꽃이 좋고 가을에 열매도 좋으며 교훈적인 고사도 얽혀 있으므로 산수유림을 조성하여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척족(躑躅) : 삼국유사 수로부인 이야기에 척족화(躑躅花-진달래 혹은 산철쭉)가 기록되어 있다. 신라 성덕왕(702~737년) 때 순정공(純貞公)이 강릉태수로 부임할 때 동행하던 중 바다가에서 짐승을 먹게 되었다. 그 곁에 바위의 봉우리가 뿔뿔처럼 둘러서 있는데 절벽에 진달래(혹은 산철쭉)가 피어 있었다. 수로부인이 꺾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서는 이가 없었는데 암소를 끌고 지나던 노인이 꽃을 꺾어와서 헌화가(獻花歌)¹⁵⁾를 지어 바쳤다.

진달래(산철쭉)은 저지대나 고산, 계곡변, 암석 위 등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잘 자라며, 음수이면서도 양지에서도 잘 자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봄철 꽃나무이기 때문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을 정도다. 따라서 척족화(진달래 혹은 산철쭉)은 신라 왕경숲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관목류 하부 식재 및 암석원 식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수종이다. 조선시대 기록되었던 왜척족 즉 영산홍 계열의 나무는 신

라 왕경숲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③ 연(蓮) :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많은 사찰이 지어졌고, 또한 기와 혹은 석물받침대 등에 연꽃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꽃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적다. 삼국사기 지마니사금(祇摩尼師今) 12년(123년) 5월에 금성 동쪽 민가가 내려앉아 연못이 되고 부거(芙蓉: 연)가 자라났다¹⁶⁾는 기록이 있다.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자란 것으로 보인다. 불교가 전래되기 전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의미는 없어 보인다. 또한 “蓮”이라고 하지 않고 “芙蓉”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특이한 사실이다. 고려시대 조경수목에 대한 앞선 연구(윤영환 1985)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기록에 의해 재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는 연대(蓮臺)에 관한 용어는 여러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蓮에 관한 기록은 한 번밖에 없다. 삼국유사 연회도명(椽會挑名)조는 원성왕(785~798년)때 고승 연회(椽會)에 관한 기록인데, 뜰에 있는 연못(庭池)에 연꽃이 사시(四時)에 시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지(庭池)에 대한 용어도 중요하지만 꽃이 사시에 시들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연꽃은 남방 식물이라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사시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④ 기타 : 설총조에는 장미와 백두옹(白頭翁-할미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또한 삼국사기 33권 차기(車騎)조에 말 안장용으로 외래수종인 자단(紫檀)과 침향(沈香) 그리고 황양(黃楊-회양목), 괴(槐-느티), 자(柘-산뽕나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나무들이 고급목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대무신왕 20년 8월 매화가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3. 왕경숲(林, 藪)을 복원하는 문제

왕경숲을 복원 혹은 재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신라시대에 어떤 임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전술한 내용에 의하면 왕경숲을 복원하

기 위해서는 경주 남산에 대나무를 심어야 하며, 풍악(楓岳)인 금강산에는 단풍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장동수 등, 1996; 장동수와 이규목, 1997) 결과를 활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장동수 등(1996: 3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라시대 경주에 있었던 숲은 14개소로 나정(蘿井), 오름림, 아진포, 계림, 천경림, 신유림, 왕가수, 봉황대, 고양수, 임정수, 지북림, 유림(柳林), 서부림(西部獵林), 울림이 있었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오리수(五里藪), 한지수(閑地藪), 동정수(東亭藪)와 비보수(裨補藪)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남정수, 어대수(魚垓藪), 고리택목, 고성수(古城藪)가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신라 왕경숲의 복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밑바탕으로 신라시대에 있었던 숲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복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선 선행연구 결과에서 빠진 신라시대의 숲에는 육부춘 가운데 하나인 대수춘, 김유신과 관계있는 동부림, 그리고 문열림(文熱林)이 있다. 모두 합치면 17개소나 된다. 신라 왕경숲은 계획은 이 17개소를 대상지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문화재 발굴문제로 대상지를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념수 식수, 대체목 육성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문열림(文熱林) : 삼국사기 祭祀조를 보면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와 다르게, 네 곳의 성문에서 드리는 제사-사성문제(四城門祭), 네 강에서 드리는 제사-사천상제(四川上祭), 그리고 네 곳의 큰 도로에서 지내는 제사-사대도제(四大道祭)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천상제(四川上祭)를 행했던 신라 왕경의 주요 하천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문열림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

2) 저수(渚樹)나 혜수(惠樹)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은 성림(聖林)으로 조성하는 경향이 있다. 마을숲은 김학범과 장동수(1993: 39)의 연구결과처럼 종교적 차원, 풍수·유교적 차원, 그리고 국가경영적 차원의 숲이 있다. 그러나 지금 거론한 문열림은 토착신앙적 차원의 숲으로 보인다. 이렇게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숲(나무)과 토착신앙과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라가 숲(나무)을 신성시 한 사례는 문열림 이외에 사대도제(四大道祭)를 지내던 왕경 서쪽에 있던 저수(渚樹),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던 나무 혜수(惠樹-은혜로운 나무)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왕경숲을 복원하는데는 이와 같은 저수(渚樹)나 혜수(惠樹)를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천경림(天鏡林) : 삼국유사 아도기라(阿道基羅)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경주 왕경에는 앞으로 사찰이 건립될 7개소의 가람 터를 예측하는데¹⁷⁾이 가운데 임(林), 수(薺) 글자가 붙어 있는 곳이 천경림과 신유림이다.

천경림은 미추왕때 공주가 병든 것을 아도(阿道)가 고쳐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에다 홍륜사를 짓게 된다. 삼국유사 원종흥법(原宗興法)조를 보면 홍륜사를 짓기 위해 법흥왕 22년(535년)에 기등과 들보에 쓸 재목은 모두 천경림의 나무를 크게 베어 넉넉하게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신라시대에 이곳에 아주 좋은 숲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기록이다. 1916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도(그림 2)를 보면 1번 지역이 홍륜사터이므로 이곳이 천경림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장동수 등, 1996: 42)에서는 5번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을 밑바탕으로 보면 홍륜사터가 곧 천경림이므로 1번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오릉림과 남정수 : 오릉림은 그림 2의 2라고 적힌 아래쪽이다. 丘陵이 있던 곳이라서 신라시대부터 수림이 잘 보전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1917년 지도(그림 1)에도 오릉 지역 주변에 침엽수림이 나타나 있다. 오릉림의 북쪽에 오릉림과 붙어 있던 숲을 조선시대에

서는 남정림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남정수(南亭薺)에 대한 지리지의 기록(동경잡기, 경주 부읍지, 읍지, 경주읍지)을 보면 “하나는 문천 북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문천 남쪽에 있으며 숲 속에 오롱이 있는데 북쪽에 있던 숲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남정수는 3번과 1번 지역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1917년 지도를 보면 그림 2의 1번과 3번 지역에 일부가 확연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장동수 등 1996: 47)에서는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의 4번은 문천(남천)이다.

5) 신유림(神遊林) : 신유림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神이 놀던 숲이란 뜻이다. 신유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 것으로 기록¹⁸⁾되어 있는 반면에, 삼국사기에는 “낭산에 구름이 피어올라 누각처럼 보였고 향기가 퍼져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실성왕(402~417년)이 틀림없이 신선이 내려와 노는 곳이니 북받은 땅이라 하여, 사람출입을 금하고 벌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¹⁹⁾”라고 하여 낭산은 곧 신유림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유림은 문무왕(672년)때 신라가 당나라와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당나라의 침범을 막기 위해 급히 사천왕사를 세운 자리인 것을 감안하여 지도와 대조해 보면 삼국유사의 기록이 더 정확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낭산이 신유림”이라 하지 않고 “낭산의 남쪽에 신유림이 있다”라고 기록한 점이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1916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1/25,000 지도인 그림 3을 보면 낭산은 그림의 상부에 영어와 함께 적혀 있는데 주변지역이 침엽수림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가운데 55번 선덕왕릉도 있고 그림 하단부에 검은선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南川으로 적혀 있고 괄호속에는 문천이라고 적혀 있다. 59면 사천왕사지”라고 적힌 지역부터 E(당간지주) 글자가 적힌 곳까지가 사천왕사가 있던 자리이고 이곳이 바로 신유림 터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는 뚜렷한 수목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17년 당시에도 숲은 없어진 상태로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6) 왕가수(王家薺) : 현존하는 조선시대 전국지리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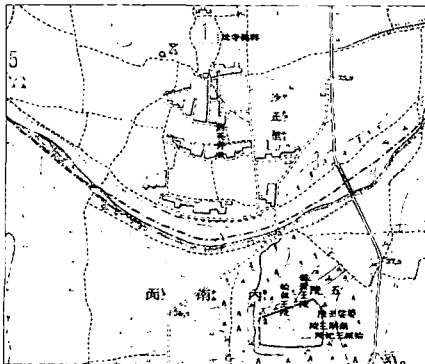


그림 2. 홍륜사지 - 오릉지역의 임수

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부의 남쪽 10리에 있다. 사람들이 목랑(木郎)을 제사하는 곳이다. 목랑은 속칭 두두리(豆豆里)라고 한다. 비형(鼻荊) 이후로 세상에서는 두두리를 섬기기를 매우 성대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비형은 삼국유사 도화녀(桃花女)와 비형랑조에 나오는 사람이다. 신라 25대 진지왕(眞智王, 576~579년)이 주색에 빠져 4년만에 폐위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 후 2년 뒤 도화랑과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 비형랑이다. 비형랑은 밤마다 귀신과 놀기 때문에 진평왕(579~632년)이 다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귀신들과 함께 하루 밤새 만든 다리가 귀교(鬼橋)다. 이런 일들에 의해 귀신의 무리들은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하며 달아났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귀형에 관한 글을 써 붙이게 되었다. 이것이 두두리의 시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사찰 영묘사(靈妙寺)조에는 영묘사가 두두리(豆豆里)들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건립된 사찰임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왕가수란 “왕의 집안과 관련이 있는 숲”이라는 뜻이다. 이는 비형랑의 출신에 바탕을 둔 숲의 이름이다. 따라서 왕가수의 성격은 계림처럼 건국 설화가 깃든 거국적인 신성한 숲의 성격도 아니고, 신유림처럼 천신(天神)이 내려온 것을 믿는 신앙의 숲이지만, 평민들이 믿었던 원시신앙림으로 보아야 할 숲이다. 따라서 신라 왕경숲에서 신앙의 숲은 계림, 신유림, 왕가수 셋으로 대상지 검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숲이다.

위치는 선행연구(장동수 등, 1996: 43)에 의하면 모량천과 서천의 합류지점으로 보고 있다.

7) 고양수(高陽藪) : 邑誌(1832년경)의 기록에 의하면 ‘고양수는 부의 북쪽 4리에 있으니 옛날에 말하는 소위 논호수(論虎藪)’인 것으로 되어 있다. 논호림에 얽힌 설화는 삼국유사 김현감호(金現感虎)에 잘 나타난다. 신라 38대 원성왕(785~798년) 때 김현이라는 사람이 탐돌이를 하다가 한 처녀를 알게 되어 사귀어 정을 맺었으나 처녀는 범이었다. 그러나 처녀가 죽을 운명이 닦쳐서 성북림(城北林)에서 김현을 만나. 김현의 칼로 자결을 하게 된다. 김현은 이 일로 인해 벼슬길에 나아갔지만 호원사(虎願寺)라는 사찰을 짓고 범의 저승길을 인도했다. 김현이 죽을 때 이 사실을 적어 전하

였기에 숲의 이름을 논호림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성북림이던 것이 논호림으로 바뀌었고 조선시대 때 고양수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성공원 자리이다. 현재 황성공원은 주로 느릅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남쪽에는 상수리나무, 북쪽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하며 뒤에 심은 밤나무, 옷나무, 빛나무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대상지는 경주문화엑스포공원 일대인 경주시 천군동 130번지 일원 및 동천동 시설녹지이지만 이것은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주문화엑스포공원일대가 사업의 대상지로 포함된 것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엑스포공원에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동천동은 매장문화재가 확인된 지역이므로 공사를 시행하기 쉬운 점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왕경숲과는 역사적 관련성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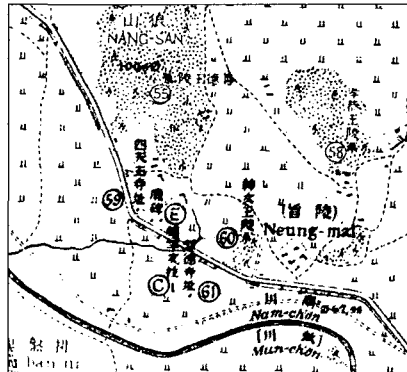


그림 3. 남산지역의 입수



그림 4. 논호수(論虎藪), 자료출처 : 읍지(1832)

I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신라 왕경숲 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주요 수종의 선정 및 사업의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숲' 조성계획시 도입되어야 할 주요 식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왕경숲의 교목으로서 첫째, 신라시대에 복숭아나무는 기상이변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 나무인 동시에, 도화녀(桃花女)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또한 도원(桃園), 도림(桃林)이라고 할 만큼 군식으로 아주 많이 심겨져 있었다. 따라서 신라 왕경숲을 복원함에 있어서 주 수종(樹種)은 복숭아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재기법은 군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설계형태는 「복숭아 동산」이나 「복숭아 숲」의 형태로 설계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기록을 통해서 불 때 소나무와 대나무는 함께 식재되거나 자라던 수종이다. 이러한 식재패턴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므로 신라왕경숲 복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육부촌 가운데 하나가 대수촌(大樹村)일 만큼 신라시대에 큰나무(大樹)가 많았다. 크고 오래 사는 나무 즉 장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넷째, 풍악(楓岳)인 금강산에는 단풍나무를 더 심어 가을에 단풍이 절경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통조경수목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버드나무도 왕경숲은 복원하는데 고려해야 한다. 버드나무는 고문헌에 좋은 일을 상징하는 뜻으로 적혀 있다. 여섯째, 경문왕의 "임금님은 당나귀 귀"라는 설화와 관계 깊은 산수유는 신라 왕경림에서는 산수유림으로 조성하여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 왕경숲의 하목으로서는 첫째, 경주 남산의 여러 곳에 대나무를 많이 심어 경주 남산에 대나무가 많다는 인식이 되도록 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척축(진달래 혹은 산철쭉)은 신라 왕경숲

을 재현하는데 있어서 관목류 하부 식재 및 암석원 식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할 수종이다. 조선시대 기록되었던 왜척축 즉 영산홍 계열의 나무는 신라 왕경숲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3) 왕경숲의 기타 수종으로 연, 회양목(黃楊) 산뽕나무(柘), 매화, 할미꽃(白頭翁) 등은 1회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라 왕경숲 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조경식물이다.
2. 신라 왕경에 있었던 숲의 문제는 첫째 나정, 오름림, 아진포, 계림, 천경림, 신유림, 왕가수, 봉황대, 고양수, 임정수, 지복림, 유림, 서부럽림, 울림, 육부촌 가운데 하나인 대수촌, 김유신과 관계있는 동부림, 그리고 문열림 등 모두 17개소나 된다. 신라 왕경숲 계획은 이 1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문화재 발굴문제로 대상지를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념수 식수, 대체목 육성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라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 있는 숲과 나무를 신성시 하였다. 사천상제(四川上祭)를 지냈던 문열림(文熱林), 사대도제(四大道祭)를 지냈던 왕경 서쪽에 있던 저수(渚樹),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던 나무 혜수(惠樹)들도 왕경숲을 조성하는데 복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신라 왕경숲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숲은 계림, 신유림, 왕가수 셋이므로 대상지 검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숲이다.

-
- 주 1.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3. 12. 2., "경주 왕경숲 복원사업 지원", pp. 1~2.
 - 주 2. YTN, 2003. 12. 1., "경주 왕경숲 복원에 100억 지원". 조선일보, 2004. 10. 16., "경주에 신라숲 조성". 매일신문, 2004. 10. 16., "신라 왕조 상징숲 조성".
 - 주 3. 신라 : 파사니사금 23년(102) 10월, 내해니사금 8년(203) 10월, 진흥왕 원년(540) 10월, 경덕왕 22년(763) 8월, 흥덕왕 8년(833) 10월, 경문왕 3년(863) 10월, 고구려 : 고국양왕 3년(386), 문자왕 3년(493) 10월, 안원왕 10년(543) 10월. 백제 : 온조왕 3년(BC 16)
 - 주 4. 王都梨樹連理
 - 주 5. 중국 진(晉)나라 때 시인인 도연명이 쓴 작품. 무릉(武陵)의 어부가 골짜기를 가다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만발한 숲속 동굴을 지나 이상향 마을을 만나게 된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어부의 말을 들은 군수가 그 마을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 주 6. 김재식·김기문 편저(1991), 경주풍물지리지, p. 187. 선도산에 선도산성이 있는데 서악(西岳)산성, 서형(西兒)산성이라

고도 한다. 진평왕 15년(593)에 개축했고 문무왕 13년(673)에 증축했다. 문무왕때 증축은 나당 7년 대전 준비로 증축한 것이라 이 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주 7. 大寒 松竹皆死
- 주 8. 遮我而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 주 9. 松花涵洞府林
- 주 10. 南山之竹 不足諫臣之罪
- 주 11. 赫居世居西干 元年(BC 57) 四日茂山大樹村
婆娑尼師今 17年 秋七月(96) 拔金城南大樹 / 伐休尼師今 13年(196) 夏四月 設宮南大樹 / 訖解尼師今 35年(344) 夏四月 暴風拔宮南大樹 / 閔哀王 2年(839) 正月 王在西郊大樹之下
多婁王 21年(48) 春二月 宮中大槐樹白枯 / 近仇首王 10(384) 宮中大樹白枯
- 주 12. 景德王 22년(763) 秋七月, 京都大風 飛瓦拔樹
景明王 5년(921) 夏四月 京都大風拔樹
慕本王 02년(49) 三月 暴風拔樹
- 주 13. 조선일보 2004. 7. 2. 명의들의 명강의 ㉠ 알레르기 질환. 김유영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80년 5.6%, 1990년 10.1%, 1997년 14.5% 현재 16~17%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버드나무 꽃씨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 주 14. 奈解尼師今 3年(198) 始祖廟前臥柳自起 / 沾解尼師今 7年(252) 金城南臥柳自起
武王 35年(634) 三月 穿池於宮南 引水 二十餘里 四岸植以楊柳 水中築島嶼 擬方丈仙山.
- 주 15. 자춧빛 바위갓에, 잡은 손 암소 놓고, 날(我) 아니 부끄러이 하려든,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주 16. 金城東民屋 陷爲池 芙蓉生.
- 주 17. 이민수 역(1983) 삼국유사, p. 197. 其京都內有七處伽藍之墟.
- 주 18. 이민수 역(1983) 상계서, p. 111. 狼山之南有神遊林
- 주 19. 寶聖尼師今 7年 秋八月 雲起狼山 望之如樓閣 香氣郁然久而不散 王謂 是必仙靈降遊 應是福地 從此後 禁人斬伐樹木.

인용문헌

1. 김재식, 김기문 편저(1991) 경주풍물지리지. 경주: 도서출판 글밭.
2. 김태욱 (2002) 한국의 수목. 서울: 교학사.
3. 김학범, 장동수(1993) 古文獻에 나타난 한국마을숲의 始源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1): 19-40.
4. 김학범, 김정태(1995) 한국 고도읍에 출현된 邑蔽의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3(2): 13-26.
5. 慶州郡史 편찬위원회(1989) 慶州郡史. 대구: 구일출판사.
6. 민족문화추진회 역(198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Ⅲ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7. 민주면(1669) 東京雜記(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지리지총서 지방지 1 慶州誌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8. 손상의 외 13인(1933) 慶州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지리지총서 지방지 1 慶州誌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9. 윤영환(1985) 고려시대 정원에 관한 연구(1). 한국정원학회지 4(1): 81-88.
10. 이민수 역(1983)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11. 임제원(1789~1791) 慶州府邑誌(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지리지총서 지방지 1 慶州誌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2. 邑誌(1832)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지리지총서 邑誌1 慶尙道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3. 장동수 김학범 황정환(1996) 경주 읍수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1(3): 37-49.
14. 장동수, 이규목(1997) 경주 포항시 전통도시숲(邑蔽 林蔽)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5(1): 1-15.
15. 장동수 이규목 김학범(1993) 慶尙道 地方에 조성된 林蔽의 경향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1(2): 77-89.
16. 조선총독부(1985) 一萬分 朝鮮地形圖集成. 동경: 柏書房.

원 고 접 수: 2004년 9월 1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4년 11월 29일
 4인익명 심사필